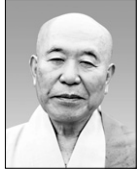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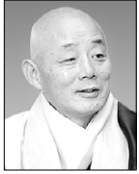
부천 천화사 백만독 관음정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1월 2일 부천 천화사에서 백만독 관음정진 결제를 봉행했다. 김해 해상사는 내년 2월 10일까지 100일 정진에 돌입한다.



제1회 노동자 친선 체육대회
함께하는세상 이사장 지성 스님은 11월 8일 대구 성서초등학교에서 '제1회 노동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053582-0479)



인드라망 귀농 마을학교 개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1월 20~22일 전북 귀정사에서 귀농자를 위한 인드라망 마을학교를 개회한다. (02576-1886)



파라미타 서울 지회 장학금 수여식
서울 파라미타청년회협의회 회장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은 11월 15일 봉은사에서 동대부고 등 13개 불교계 학교 분회 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육천군 아이날기 운동본부 출범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11월 4일 '아이 날기 좋은 세상' 육천군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제27차 49일 다라니정진회향
일산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은 11월 8일 제27차 49일 천수다라니 기도정진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원심회 두두림 공연 성료
조계사 원심회 김경정 회장은 1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두두림 공연을 성료했다.



반갑다연우아자선센터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12월 4일 KBS공개홀에서 부설 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아' 1만명 무료진료 기념 자선콘서트를 개최한다.



제2회 승안보살 10대원 수계법회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이사장은 11월 25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실시한다. (02722-2101)

<바로잡습니다>

본지 756호(11/4일자) 8면에 게재된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창종' 기사 중 초대종정 화엄 스님을 초대종정 정화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계·정·혜 지키며 부처님 말씀 수행하라”

한국테라와다불교 상가라자에 도성 스님 추대

“테라와다(상좌부) 불교가 한국에서 20년 만에 지금과 같은 조직화와 성장을 이룬 것은 수많은 수행자 여러분들과 테라와다 수행국가, 한국불교교단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테라와다불교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상징인 승정(상가라자)으로 도성 스님(뎡나산포, 태종사 조실)이 추대됐다. 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뎡나와로)는 10월 31일 BBS불교방송 대법당에서 '한국테라와다 불교 창립법회 및 까리나 행사'를 개최하고 도성 스님을 상가라자로 추대했다.

도성 스님은 추대식에서 “20년 전만 해도 남방불교인 테라와다불교 수행자는 극히 소수였으며, 개인적으로 수행을 해왔다. 짧은 시간에 교단 창립이 이뤄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했다.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2000년 전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배우는 스님은 테라와다 교단 창립의 밑거

름은 해인사 등에서 한국전통 수행자를 닮은 인연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해인사에서 살면서 만난 운허·자운·여암 스님 등 대덕 스님들과의 인연 공덕이 크다. 특히 승철 스님을 찾아오는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빨리 어와 산스크립트를 접하면서 불교원전을 통한 공부와 보급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불교의 원류인 남방불교를 배우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도성 스님은 “부산 선암사 석암 스님이 ‘생긴 것도 못나고, 성질도 급하니 매일 108배를 하고, 참회문을 써서 항상 참회하면서 살라’고 했던 말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것이 오늘의 나신을 이끌어 왔다”며 수행자로서의 삶을 회상했다.

스님은 “몇 십 년 전 우리나라에는 수행법과 근본불교의 계맥 등에 변화가 요구됐다. 우리는 이제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배우야 한다. 불법 외에는 어떠한 것도 참



도성 스님.

삭서는 안 된다. 계·정·혜 3학을 철저히 지키며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도성 스님은 1919년 평안남도 양덕

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에 참전 해 전 쟁포로 됐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스님은 부산 선암사 지월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출가 후 56회의 안거를 마치고 1972년 태국 방콕 벤자마보딛 사원에서 프라담마 닷미소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미얀마 마하시 선원, 태국 위웨이크스 위빠사나 수행처, 스리랑카 비구 아일랜드에서 위빠사나 수행 후 한국에 위빠사나를 전파했다.

스님은 1977~1979년 해인사 주지, 1990~1993년 대흥사 주지, 1991~1993 조계종 전국 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밖에 스님은 태국 마하 쯤라롱 콘대학 한국분원 학장을 지내면서 국제적인 교학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전세계에 테라와다불교를 선양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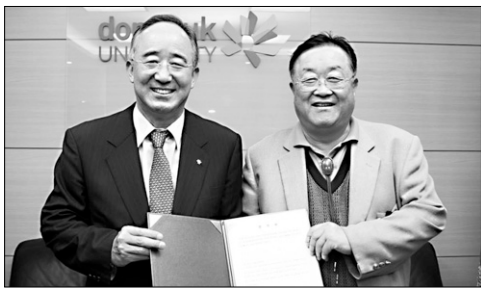
최초 거미박물관 東大에 기증

김주필 명예교수, 박물관 및 전시품 200억 원 달해

세계 최초의 거미박물관이 동국대에 기부됐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김주필 명예교수(66·한국거미연구소 소장)가 본인 소유 200억 원 상당의 거미박물관(경기도 남양주 소재) 및 전시품 일체를 학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동국대에서 20여 년을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 왔다. ‘국내 거미박사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만큼 국내 거미 연구의 일인자로 불린다. 동국대가 기부 받은 ‘주필 거미박물관’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거미 박물관이다. 25만 여점의 거미와 표본을 비롯해 수백 종의 화석 종유석 도자기 병풍 불상 등 인문 분야 수집품까지 소장한 종합박물관이다. 김 명예교수는 1만2000㎡ 규모 대지에 세워진 거미박물관을 비롯해 주필거미박물관을 세계적인 생태체험 학습시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필 명예교수(오른쪽)와 동국대 오영교 총장.

김 명예교수는 “30여 년 전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동국대와 인연을 맺어 왔다. 주필거미박물관의 영속화를 이룰 곳으로 동국대를 꼽아왔다”고 말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기부자인 김주필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필거미박물관 인근 은길산 연습림 일대 부지 1만 여 m를 환경 생태체험학습장 시설로 개발하는 등 은길산 연습림 개발사업과 연계해 주필거미박물관을 세계적인 생태체험 학습시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상대 허물 보며 나를 바로잡아”

현담 스님, 10년째 불심으로 재소자 교화

“법우들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교화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다보니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스님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10여 년 이상 남몰래 교정과 교화에 힘써온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인 서남사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주지 현담 스님은 포항교도소·청송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일 재소자들에게 법화와 교양 주관하고 있다.

현담 스님은 “상대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상대를 보면서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며 “교정의 결과가 눈에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150명의 재소자들 중 몇 명이라도 교화가 된다면 스님들의 공부가 잘 된 것 아니냐”



현담 스님.

교 말했다. 10월 28일 ‘제64회 교정의 날’에는 스님이 절에서 정성껏 재배한 호박, 고구마와 떡을 포항교도소 전 수행자에게 공양했다. 지난 6월에는 그동안 수행자들의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처럼 현담 스님의 원력행과 자비행의 덕화에 대해 지역 불자들은 “오랫동안 많은 봉사활동으로 덕행을 쌓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님은 “교화활동 시작 당시엔 10명의 법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이제는 스님 두 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며 “적은 인력에 힘을 때도 있지만 하나라도 배우려는 재소자들을 보면 힘이 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우포라이스텍 최동헌씨 아름다운동행 쌀 보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현미 쌀을 개발하는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아름다운동행에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황토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농약을 쓰지 않은 벼를 재배해온 (주)우포라이스텍의 최동헌 대표가 11월 2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승)에 쌀 20포를 전달했다.

원래 무종교였던 최동헌 대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교와 인연이 닿았다고 한다. 최 대표는 “평소에 자고 일어나면 부처님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기도 드린다”며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면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있으니 이것이 인생인가 한다”고 인터뷰 내내 소탈하고 밝은 목소리로 응했다.

또 그는 “현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통해 영감을 받았다”며 “이렇게 부처님 덕으로 나온 현미 쌀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이후에도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에 전달된 쌀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가정에 전달된다. 우포라이스텍 (055)532-7068

박선주 기자

이후락 별세 前 중앙정보부장 불교계 애도

제7, 11, 12대 전국신도회장을 지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10월 31일 별세했다.

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1963년 12월~1969년 10월)과 제6대 중앙정보부 부장(1970년 12월~1973년 12월)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10월 31일 추모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는 동안에도 전국신도회장을 맡아 신심과 열정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전국신도회 체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며 “원직을 애도하며, 불교를 위하신 높은 공덕을 기린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시록
- * 집안 동토귀신(東土鬼)알아내는 법
- * 자녀(子)액운(厄)차귀달(差)정단법
- * 취직(求)시험(試)·승진(進)시험(試)의 합격(合)판단법
- * 선거(選)후보(後)당선(當)비율(率)하는 여부(有)판단법
- * 관청(官)·공무(公)원(源)빈자리(貧)인(人)관(官)가능(能)여부(有)
- * 소송(訴)·판재(判)사의 승패(勝)판단법
- * 보고(報)싶은(思)사람(人), 기다리(待)는 사람(人) 소식(息)가능(能)일
- * 가솔(家)자가 언제(時)쯤 집(家)에 돌아(來)올까?
- * 잃어(失)버린(去) 분실(分)물(物) 위치(位) 추경(追)법
- * 도주(盜)·도망(逃)간(間) 사람(人)이 어느(何)쪽으로 갔(去)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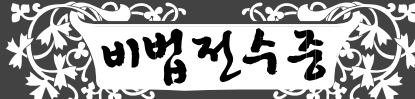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宗)원(源)귀(鬼)법
- * 12신궁에 암장(暗)된 악령(惡)귀신(鬼)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生)투(投)시(時)법
- * 前生(前生)의 夫(夫)婦(婦)인(人) 원(源)집(集)살(殺)이 現(現)생(生)에 미(미)치는 現(現)상(相)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氷)작(作)귀신(鬼)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後)환(換)생(生) 귀신(鬼)작(作)해(解)론
- * 산소(山)·무덤(墓)에 관(關)해서 [음택(陰)법]
- * 무덤(墓)안 유골(遺)골(骨)의 현(現)재(在)상(相)대(代) 알아(知)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